



Korean Trail 42nd Story

## 해파랑길 10코스 자연이 빚어낸 절작, 주상절리를 걷다

‘길맛’이 남다르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듯 따라붙는 바다와 그 옆으로 이어지는 해안 길을 쉬엄쉬엄 따라가다 보면 하얗게 부서지는 눈부신 파도와 하얀 모래밭, 울망줄망한 포구와 고깃배 등 겨울 바다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용암의 수축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를 길동무 삼아 걷는 매력이 크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던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김남조 시인의 ‘겨울 바다’를 읽다 보면 겨울 바다로 달려가서 ‘뜨거운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겨울 바다 하

면 동해다.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장장 770km나 이어진 해파랑길은 동해아침(1코스~4코스), 화랑순례(5코스~18코스), 관동팔경(19코스~40코스), 통일 기원(41코스~50코스)으로 구성돼 있다. 누구나 한번쯤 걸어본 동해안 걷기 여행길이지만 사시사철 또 다른 속살을 보여준다. 주상절리를 품은 해파랑길 10코스는 울산 정자항에서 경주 나아해변까지 14.1km에 달하며 소요시간은 5~6시간이다. 역겹의 세월이 담긴 주상절리와 푸른 동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자연의 오묘함에 감탄하게 되는 코스다.



### 푸른 바다와 길동무가 되는 낭만길

해파랑길 10코스는 싱싱한 회로 이름난 울산의 정자항에서 시작된다. 옛날 옛적에 수십 그루의 느티나무 사이에 정자가 있어 정자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빨간 귀신고래 등대가 인상적인 방파제 앞에서는 따스한 겨울 햇볕과 바람에 가지미와 오징어가 꾸덕꾸덕 마르고 있다.

정자항에서 '국토중주 동해안 자전거길'이라는 노면 표시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수많은 갈매기가 쉬고 있는 정자해변에 이른다. 겨울 한낮의 따사로운 햇볕을 쬐는 갈매기들로 인해 행한 겨울 해변이 조금은 덜 쓸쓸해 보인다. 정자해변은 바둑알 크기의 자갈이 널려 있어 몽돌해변이라 부르는데 일반 백사장과는 다른 청량감을 선사한다. 갈매기 떼의 비상에 파도가 몽돌을 휩쓸고 내려갈 때 들려주는 '짜르륵 짜르륵' 소리가 더해지면 겨울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다.

겨울 바다에 취해 걷다 보면 어느새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인 강동화암 주상절리(울산시 기념물 제42호)와 마주친다. '뜨거운 기도를 올리기 더없이 좋은 장소다. 주상(柱狀)은 기둥을, 절리(節理)는 돌에 생긴 금을 뜻한다. 마그마에서 분출한 1천도 이상의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하게 되면 용암의 표면에는 가름에 눈바닥이 갈라지듯 틈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 혹은 육각형 기둥이 주상절리다.

강동화암 주상절리는 신생대 제3기(약 2천만 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 용암이 냉각하면서 열수축 작용으로 생성된 냉각절리다.

동해가 확장돼 일본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던 때이다. 돌기둥을 깎아서 장작을 쌓듯 차곡차곡 쌓아 놓은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걸음을 땀 때마다 마음은 비워지고 눈은 더욱 맑아진다. 마을의 이름인 화암(花岩)은 주상체 횡단면이 꽃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

수천만 년의 세월을 품은 돌기둥을 뒤로하고 신명교를 지나면 처음으로 해파랑길 안내 표시판(정자항 3.1km, 강동화암 주상절리 0.7km, 읍천항 9.8km, 나아해변 10.8km)을 만난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신명마을의 일주문격인 선돌에 닿는다. 기암 꼭대기에는 비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해송의 끈질긴 생명력이 경이롭다. 한 굽이를 돌 때마다 보는 맛이 색다른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신명길이 끝나고 '땅의 경계가 되는 길' 지경길과 만난다. 행정구역이 경남 울산에서 경북 경주로 바뀐다. 31번 국도변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이라고 쓰인 대형 표지석이 서 있다. 표지석 옆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관성해변이다.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관성해변은 솔숲과 모래밭, 자갈이 함께 공존하는 해변으로 갯바위가 어우러진 바다 풍경이 아름답다. 쿿트까지 쫓아가게 만드는 칼바람이 후련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신라 시대에 별을 관측해 시간을 측정하는 첨성대 같은 시설이 있어 관성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끄트머리에서 좁은 골목을 지나 60m에 달하는 나무계단을 오르면 31번 국도와 다시 만나고, 음식집이 즐비한 국도를 900여m 걷다 해안가 쪽으로 들어서면 수렴1리 복지회관이다. 이곳에서 몇 걸음 더 옮기면 바



해파랑길 10코스는 울산 정자항에서 경주 나아해변까지 14.1km에 이른다. 수천만 년의 세월을 품은 주상절리는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다. 주상절리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막혔던 속을 후련하게 풀어준다. 특히 경주 양남면 하서항에서 읍천항까지의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은 천혜의 절경이다.



닷가에 마을 사람들을 편안히 지켜준다는 수호천사 '수렴할매바우'가 자리잡고 있다. 할매바우에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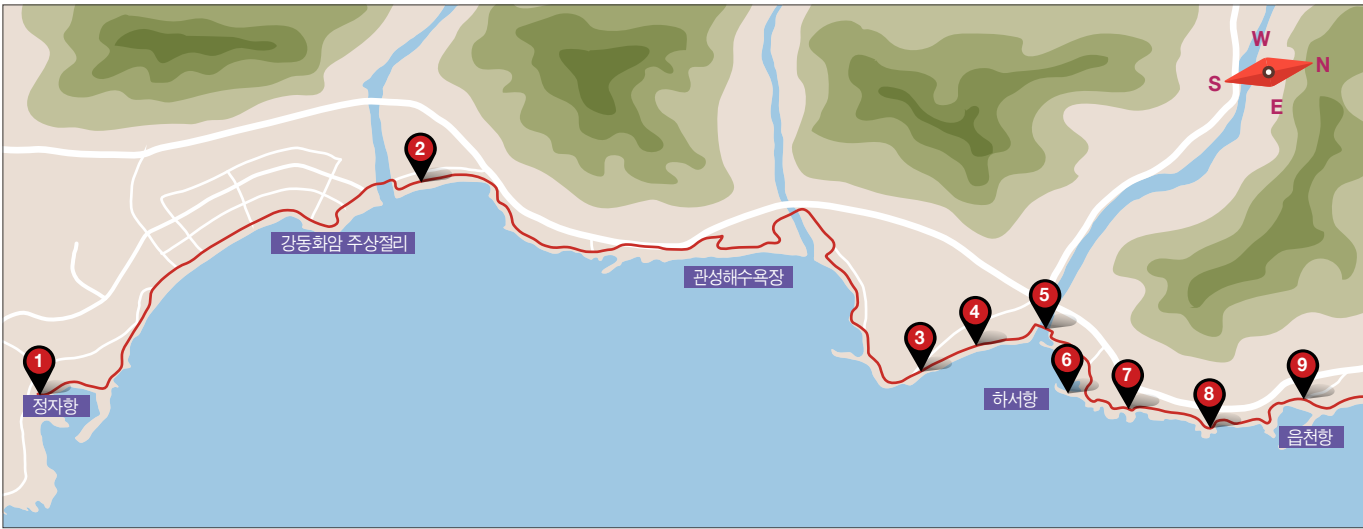
할매바우 앞에서 잠시 소원을 빌고 난 뒤 무장공비격멸전적비를 지나 인어 공주 청동상이 있는 하서해안공원에 이른다. 해안공원로를 따라 걷다 양남해수온천랜드 앞에서 하서천에 놓인 물빛사랑교를 건너면 하서 4리다. 하서 4리에는 대형 주차장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안내판이 있다. 경주시에서 해파랑길 공식 구간에 포함된 양남면 하서항에서 읍천항까지의 1.7km 해안길을 '경주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로 명명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기울어진 주상절리, 누워 있는 주상절리, 위로 솟은 주상절리, 부채꼴 주상절리 등 다양한 주상절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은 2009년까지 군부대의 해안작전경계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이다.

주상절리 옆에 덱(deck) 길을 조성해 걷기에 좋다. 흙길과 덱 길을 번갈아 걸으면서 갖가지 형태의 자연 예술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벤치가 곳곳에 있어 사색의 공간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파도소리가 온몸에 가득 차오를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주상절리는 기울어진 주상절리다. 조금 더 걸으니 돌기둥들이 원목을 한자리에 포개어 놓은 것 같은 '누워 있는 주상절리'가 나

타났다. 전망대에 서면 크고 작은 파도가 들고 나면서 주상절리를 휘감고, 갈매기의 날갯짓이 부지런하여 주상절리 풍광에 생동감이 넘친다. 운치 있는 흙길을 따라가면 바닷가 언덕 위에 세워진 '위로 솟은 주상절리' 전망대다. 파도를 맞으며 솟아 있는 주상절리는 '수직주상절리'라고도 불리는데 마치 거대한 솟을한 묶음씩 엮은 모양이다.

520m 더 걸으면 해안선을 따라 흠뻑 젖어 있는 주상절리 중 가장 아름다운 '부채꼴 주상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길이 10m가 넘는 주상절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모습이 바다 위에 곱게 핀 해국 같다고 하여 '동해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견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전망대와 조망공원 공사장, 경주 감포우체국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한 번 수거해 가는 '느린우체통'이 있는 포토존, 스위스·바다풍경·쿠파 등 펜션을 지나 길이 32m, 폭 1.5m의 출렁다리를 건너면 벽화로 유명한 읍천마을에 닿는다. 마을 가리 담벼락을 따라 읍천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가득 차 있다. '읍천갤러리'라고 불리는 읍천마을을 벗어나면 나아해변이다.





③ 수렴 마을의 수호천사 '수렴 할매바우'에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① 해파랑길 10코스의 출발점인 울산의 정자항은 싱싱한 회로 이름난 항구다. 2006년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올랐다.



② 신명마을에 들어서면 삼각형의 기암 꼭대기와 사면에 뿌리를 내린 해송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④ 하서해안공원의 인어 공주 청동상. 공원 맞은편에는 잭스캠프클럽핑이 자리잡고 있다.



⑤ 하서천에 놓인 물빛사랑교. 예로부터 마을 처녀 총각들이 달빛 어린 하서천 물빛을 바라보며 물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별을 헤며 사랑을 속삭였다고 한다.

⑥ 하서항 방파제 맨 끝쪽의 '사랑의 열쇠'. 방파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해 콘셉트로 다양한 포토존이 있다.



⑦ 고대 회암의 신전 기둥처럼 줄지어 서 있는 '위로 솟은 주상절리'. 하서항에서 읍천항까지의 1.7km의 해안길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로 명명돼 있다.



⑧ 부채꼴 주상절리는 그 모습이 곱게 핀 한 송이 해국처럼 보인다고 해서 '동해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양남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다양한 주상절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지질명소다.

⑨ 출렁다리를 건너면 읍천마을의 다양한 벽화들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국내 최대 벽화마을로, 마을 전체가 거리 미술관이다.



# 토함산 자연휴양림 숲이 좋아 며칠을 머물고 싶은 곳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고 있는 토함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휴양과 문화유산 답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토함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휴양림은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숲길 코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산책이나 트레킹에도 좋다.



## Tip

**[ 이용 방법 & 요금 ]**  
 토함산 자연휴양림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휴양 공간이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정오다.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고, 침구·식기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정원에 맞춰져 있다. 수건을 포함한 세면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5인실 7만5천원(성수기·주말)/5만원(비수기), 6인실 9만원/6만원, 10인실 15만원/11만원, 15인실 22만5천원/15만원, 18인실(복층, 방 3개) 27만원/18만원.  
**야영 데크** 2만원. **이용 시간** 당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숲 해설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 문의 ]**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054-772-1254

## 가는 길



1997년 7월 개장한 토함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산림 휴양관, 야영장, 체육시설(풋살장·축구장·농구장)을 갖추고 있다. 울창한 숲 속을 따라 산책로와 숲 체험장, 표고버섯 체험장도 조성돼 있다. 지난 1월 초에는 숲 속에서 교육과 문화행사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문을 열었다. 휴양림 매표소 바로 옆에는 야생화 단지가 있고, 계곡을 끼고 있는 도로와 숲길을 따라가면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등이 점점이 박혀 있다. 32개의 숙박시설에서는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휴양림 맨 끄트머리에 있는 숲속의 집 27·28·29호는 해발 405m에 자리 잡아 호젓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며칠을 머물고 싶은 통나무집에서 등산로를 따라 250m 오르면 해발 490m에 있는 체육시설로 가는 임도와 만난다.

숲속의 집 30호에서 왼쪽으로 1km 정도 오르면 아늑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이 나온다. 산자락 아래 다양한 크기(3m×3m~4.2m×4.2m)의 야영 데크 40개가 들어서 있다. 데크 간격도 그리 좁지 않고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야영장에서 데크 길을 따라 400m 오르면 해발 532m의 전망대다.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야영장은 캠핑족이나 가족 단위의 휴양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숲 속에 조성된 산책로와 등산로는 심신치유에 제격이다. 숲길코스도 다양하다. 산림욕장을 포함하고 있는 1코스(3.85km, 1시간 40분), 2코스(3.79km, 1시간 40분), 3

코스(4.63km, 2시간 20분), 4코스(2.42km, 50분)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2·3 코스는 모두 전망대를 통과하는데 숲의 푸른 기운이 눈은 물론 정신까지 맑게 한다. 다양한 침엽수와 활엽수가 자생하고 있고, 다람쥐와 딱따구리 등 각종 야생동물도 볼 수 있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자연휴양림 주변에는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터 삼층석탑, 양남 주상절리, 문무대왕릉, 이견대 등이 있다. 휴양림 입구에 있는 장항리사지는 절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마을 이름인 '장항리'를 따서 '장항리사지'라고 부르고 있다. ▼